

함몰유두의 슬픔을 딛고

슬픔 제 아이가 태어나면 큰 아이처럼 모유로 키워야지 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다. 아마 —도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별 어려움 없이 젖을 물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해본다. 큰 아이가 열심히 모유를 먹으며 키우었기 때문일까. 함몰된 모양이었던 나의 유두는 큰 아이를 먹이고 나서부터는 그 끝이 오롯이 솟아 올라와 있어 이제는 그 때와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보니 큰 아이를 낳았을 때가 떠오른다.

아이를 낳고 막상 젖을 물리려고 했을 때, 특 튀어나오지 않고 끝이 안으로 오목히 들어가 버린 나의 유두 때문에 젖을 빨지 못하던 큰 아이. 그래도 엄마의 노르스름한 초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 아기에게 좋다는 것을 익히 아는 나인지라 유축기를 들이대어 젖을 짜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젖꼭지에는 노란 초유가 좁쌀크기만큼 맺히는 했지만 바늘 끝으로 찌르는 듯한 따끔대는 아픔에 눈물이 절로 떨어졌다. 좀처럼 젖을 짜낼 수가 없었고 유두 끝은 갈라질 듯 아렸다.

산바라지를 해주러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정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려가며 억지로 젖을 짜는 내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무지하고 어리석다며 눈까지 흘기셨다. 사흘째인가 친정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시간을 몰래 틈타 내게 다가오셔서, “애, 요새 젊은 엄마들 다 분유 먹이는데 그냥 너도 분유 먹이거라. 엄마가 보니까 너는 젖꼭지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사서 고생하지 말고, 분유 먹여.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젖을 먹일라구 그래, 애도 참.” 하시며 은근슬쩍 내 고충을 털어주려 하셨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유축기로 젖을 짜내고 함몰된

유두가 뽕죽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때문일까, 어느 새인가 큰 아이는 젖을 빨기 시작했고 유두 끝이 갈라져 위로 솟으며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함몰유두는 그 정도에 따라 수술을 해서 뽑아내기도 한다던데 내 경우는 유축기 덕분에 다시 돌출된 모양이 되었다.

큰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분유를 먹인 다른 아이들보다 큰 아이의 몸무게는 항상 좀 모자랐다. 하지만 눈에 보이게 축이나 있지는 않았고 그저 ‘날씬한’ 정도였다. 아이는 토실토실 살이 찌지는 않았으나 단단했고 아무것도. 비만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 친정 식구들은 아이의 이런 ‘날씬함’에 기뻐하였고 너무 살이 찐 갓난아기들은 볼품이 없다며 오히려 큰 아이를 귀여워 해주었다.

그래도 모유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7·8개월 쯤에는 분유도 조금씩 먹였는데, 아이는 엄마젖을 먹을 때만큼 행복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묽은 죽과 같은 이유식을 주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아이를 보듬어 안고 모유를 먹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젖을 먹일 때만큼은 아이에게 집중하려 노력했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아이의 얼굴위에 별처럼 빛나는 두 눈과 하얀 이마와 동그랗게 주먹질 손을 열심히 바라보며 아이의 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없는 언어를 들었던 것이다. 젖을 먹고있는 아이의 그 행복한 얼굴이란!

바로 이 표정을 보려고 내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는 천사같은

얼굴로 요모조모 내 얼굴을 쳐다보며 젖을 먹는 것이다. 그 사랑스런 얼굴로 내 품에 안겨서 자신의 ‘빨기 욕구’를 마음껏 채우는 천사와도 같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쩡- 한 기분이 내 마음을 마구 뒤흔들고, 뇌하수체 어디선가 분비된다는 호르몬 때문일까 나른해지면서 흐뭇해지는 내 기분 또한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첫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고기를 먹느냐, 생선을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에 따라 아이역시 고기를, 생선을, 채소 성분이 포함된 모유를 먹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먹은 음식이 무엇이나에 따라 모유에서 풍기는 냄새가 각각 다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매운 것 먹지마라. 너무 찬 것도 먹지마라.” 하시며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게 했던 모양이다. 미역국이며 곰탕, 잉어탕, 족발을 푹 고은 물을 먹으며 젖이 많아지길 기대하던 그 때가 그리워진다.

이런 노력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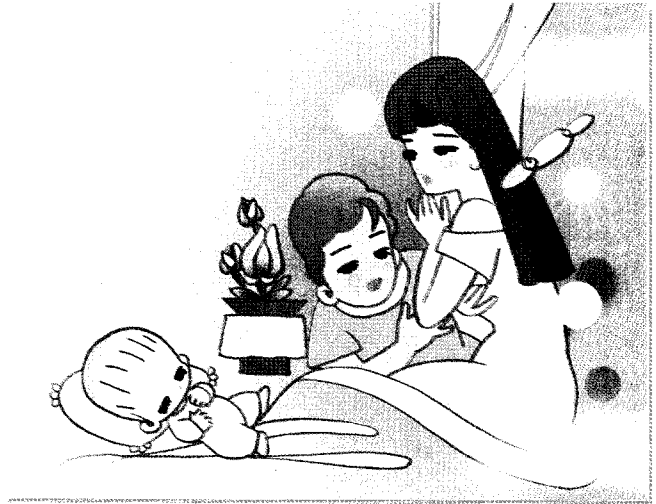
나는 젖을 먹고 자란 우리 큰 아이가 남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아는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특히 껴안고 뽀뽀하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고 웃음이 많으며 네 살의 어린 아이 치고는 인내심이 많아서 종일을 칭얼거리는 법이 없다. 힘들게 즐라대지 않으며 집중력이 강하고 동물과 같은 생명체에 대해 동정심을 기울일 줄을 안다. 무엇보다 엄마를 배려할 줄 알고 엄마를 걱정할 줄 아는 의젓함이 이 어린 아이에게서 수시로 드러나는 것에 나는 놀란다.

의젓한 꼬마신사인 큰 아이가 엄마로서 몫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 형성된 이유를 들라면 나는, “내가 먹은 것으로 내 몸의 혈액이 만

들어낸 나의 젖을 먹고 자랐기에 뽀뽀가 알차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애교있고 사랑스런 우리 아이 성격의 기본은 모유를 먹은데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언제나 당당히 말하고 싶다.

모유에는 DHA나 타우린이 들어있어 아기 두뇌와 중추신경 발달을 도와주고 철분이나 무기질



의 흡수도가 분유보다 훨씬 높으며 젖을 빨게 되므로 아기의 턱이 발달하고 엄마에게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출산 후 늘어진 유방과 자궁을 수축시켜준다... 와 같은 지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낳은 엄마라면 아기를 품에 안고 그 물봉숭아빛 입술에다 젖을 한 번 물려보라. 그 따스한 체온과 사랑이 아기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그 행복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소중한 것임을 절로 느껴질테니. 그리고 사랑스런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행복한 천사의 얼굴을 보여 줄 것이며 이 세상에 오롯이 홀로 설 그 날 까지도 젖을 준 엄마의 사랑을 고스란히 잊지않고 당당히 자라, 틀림없이 제 몫의 능력을 다 하는 세상의 빛이 될테니. PPFK

본 난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분 새빛상에 입상한 김진영씨의 작품입니다.